



네 껍데기를 보지 말고 네 알맹이, 진짜 너를 찾아보아라

한결같은 믿음으로 공부하고 싶어요

문) 공부를 해나가다 보니 자신에 대한 믿음이 많이 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확실히 믿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자신이 없어지곤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한결같은 믿음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지요.

답) 우리는 생각하는 데에 이게 금방 믿었다가도 다른 큰 일이 생기면은 금방 그 믿었던 마음이 변하죠. 변할 때 그 지장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그거 모르실 거예요. 꿩꿩이 이렇게 돌다가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지고 또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지고 그러면 그 몸통이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그와 같이 믿었다 안 믿었다 이렇게 그냥... 이것이 그냥 뿌리가 있으니까 있다.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건데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 간사해서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못 믿는 거죠. 그리고 큰 일이 생기면은 자기 생각에 그런 거죠. '이런 거는 정말 될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또 되거든요. 이런 거는, 될 수가 없다 이런 거는 자기 생각에 그런 거지만 사람 생각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부처님의 뜻에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자기 생각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서 그 간악한 마음이 오는 거를 그 간악하지 않게끔 하려면은 자꾸 관해서 너만이 그렇게 가냘프고 마음이 약하고 믿지 못하게 만들지 마라 하는 조항도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이 이 스님네들한테 말 듣는 것만 가지고 깨친다 이러지 마세요. 너무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금은 금 있는 데 들어가서 녹이지만 거 넣습니까. 무쇠는 무쇠대로 무쇠 있는데 무쇠가 들어가서 녹고 물결이 되지만 거 들어 갑니까. 구리에는 구리가 들어가고 별의별 문제, 별의별 천차만별의 문제들이 그렇게 차원에 따라서 끼리끼리 만나게 되고 있죠. 사람들도 그렇게 끼리끼리 만나게 되고 있고, 사람을 생산해서 자식을 낳는데도 그렇게 끼리끼리 만나게 되고 있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깨치고 보면 한 나절을 울어도 시원치 않고 한 나절을 쳐다보고 웃어도 시원치 않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얼마나 가르치기가 어려우면 자기 제자들하고 같이 순행을 돌다가, 예전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냥 갖다가 그 관에 담아서 놓기도 하고 거적으로 말아서 이렇게 갖다 놓기도 하고 그래서 새들

이 모두 쪼아 먹기도 하고, 외려 골을 빨리 쪼아 먹으라고 터뜨려서 놓기도 하고, 이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런 시대에 부처님께서 그 뼈다귀 놓인 거 보고서 그렇게 진실하게 절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따라갔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저분은 참 모자라니까 저렇구나.' 하는 생각도 했을 거고, '저렇게 지력이 있고 저렇게 깨치신 분이, 사생자부이신 분이 어떻게 저 뼈다귀에다 절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모르니까. 그러나 부처님께서서 그걸 '우리 할머니일 수도 있고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

고 형제일 수도 있다.' 이 말 한마디로서 이 세상의 일대사, 즉 말하자면 미생물에서부터 수 없는 겁을 거쳐 나오면서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지평을 한 그 이치를 다 아시고 그걸로다가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눈뜨고 이게 이치를 아는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얼른 '아, 이거는 이런 거구나.' 하고 빨리 깨닫지만 그 눈을 뜨고 귀를 뜨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듣고도 그냥 그런가보다 이렇게 했고, 지금으로 치면 '저 스님 들었잖아. 저거, 저거 어떻게 잘못 된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말이 그렇지, 내 부모 아님이 없

고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내 형제 아님이 없으니까. 이거는 사람뿐이 아니라 이 흙속에 있는 생물도 다 생명이 있고 나무가 서 있는 것도 다 생명이 있는 나라. 그러니 어느 거 하나 빼놓은 게 없다 이거죠. 그러니 이 이치를 어찌 그 말로만 듣고 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엔 깨치는 거를 그렇게 제일로 쳤죠. 너는 껍데기니까 네 알맹이를, 말로 막하자면은 네 껍데기를 보고 내려고 생각지 말고 네 알맹이를 찾아서 진짜 너를 찾아보아라. 너를 찾아야 이 물질세계와 이 무의 세계가 같이 혼합이 돼서 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세

상이 어떻게, 진리가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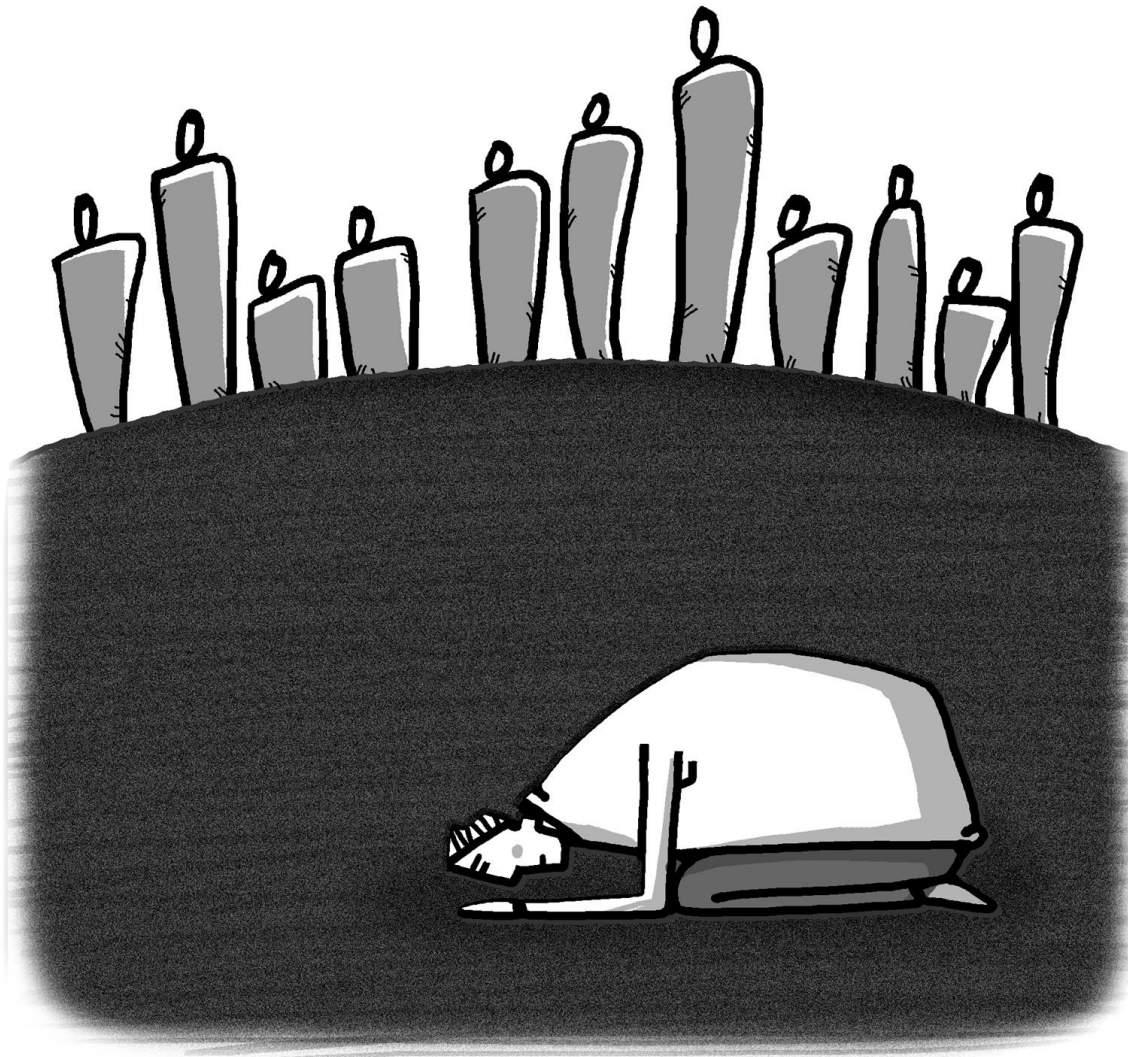
천차만별의 물질들이 전부 그냥 차원에 따라서 인연이 돼서 만납니다. 그런데 생각들 해보세요. 어른들은 자식들을 자식들은 어른들을 이렇게 해 가면서 원망을 하면서 살죠. 때로는 원망을 하고 때로는 고맙기도 하고 때로는 별의별 생각을 다 해보고 살죠. 환경에 쫓아서 말이예요. 그런데 끼리끼리 무쇠는 무쇠대로 들어가서 만남이 있었다 이렇다면 무쇠끼리 무쇠를 원망하고 무엇을 미워하고 예뻐하겠어요. 서로서로 똑같은 인연인데. 자기 부모가 금이라야 금이 돼서 들어가고, 금 될 수 있는 가치가 있어야만 금이 금으로 들어가고, 무쇠는 무쇠로 돼 있으니까 무쇠로 된 것이나 한테 오는 거고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차만별로 돼 있는데다가 사람뿐이 아니라. 사람은 사람의 모습만 사람이 됐지 진짜 사람이 된 게 아니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말은 들어갔어도 아직 사람이 못 돼서, 그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되고 짐승이 다시 또 도로 된다 이거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움직여지고 사니까 이게 사는 건가보다 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나가지만 이게 적지 않은 인생이 살아나가는 숙제입니다.

인생 한 철 보람 있게 살고 싶어요

문) 인간 되기도 어렵는데 이렇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무의미하게 살다 가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지어놓은 인연이 많아서인지 저를 그냥 편하게 내버려두질 않네요. 어떻게 하면 인생 한 철 보람 있게 살다 갈 수 있을지요.

답) 사람이란 게 어느 집의 가정으로서 이렇게 한 모임을 가지고 한 식구라고 사는데, 언제 적에 한 식구로 살았습니까? 영원한니까, 그게? 한 철 사는 겁니다. 한 철, 우리 스님네들이 한 철 나가서 살고 한 철 또 들어오고 이러는 거와 마찬가지로. 한 철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철 이 집에서 모여서 살다가 또 헤어졌다가 다른 데 가서 또 한 철 삽니다. 그러니 네 부모 내 부모가 어디 따로 있습니까? 통틀어 본다면 네 부모 내 부모, 내 자식 네 자

그림 · 최주현



A30면으로 계속

선 · 무 · 도 · 세 · 속 · 포 · 교 · 30 · 주 · 년

산사예술제 학술대회 · 전통무예대회

2014년 10월 25일(토) ~ 26일(일) 골굴사

선무도는 불교의 근본수행인 지관수행을 바탕으로 심신의 조화를 이루는 수행법입니다. 한국불교 승군의 전통무예를 계승한 불교금강영관 선무도가 세속포교 30주년을 맞이하여, 불교금강영관 선무도의 역사와 철학, 사상을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더불어 한국전통무예대회와 산사예술제도 함께 하오니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25일(토)

09시 - 선무도 승단 심사
14시 - 선무도 학술대회
18시 - 30주년 축하연

장소 - 선무도대학(골굴사 경내)



10월 26일(일)

11시 - 범종 타종식
13시 - 전통무예대회 및 산사예술제 - 태권, 기천문, 24반 무예 등 10여개 단체, 일본 가라데 시연단, 선무도 해외지부 시연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등)

재) 선무도 대금강문 · 사) 세계선무도총연맹 총재 설적운

골 · 굴 · 사 · 중 · 창 · 불 · 사 · 25 · 주 · 년

원효성사 화엄종 타종식

2014년(2558년) 10월 26일 11시(윤달 9월 3일)

증명법사 성타 큰스님(불국사 회주)



1500년 마애아미타불의 온화한 미소가 깃든 국내 유일 12처 석굴사원. 원효성사의 성지 혈사로 알려진 신라 천년고찰. 골굴사 중창불사 25주년을 기념하여 원효성사의 진영과 사상을 담은 범종을 주조하여 타종식을 갖고자 하오니 사부대중께서는 많은 성원과 축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칭 - 원효성사 화엄종

계원 - 1천관 양각(제작사: 종종사)

개요 - 보물 581호 골굴사 마애여래좌상 원효성사 진영과 사상, 선무도 동작 등을 양각으로 조성

문의 - 054. 744. 1689 www.sunmudo.com

윤달 삼사순례는 원효성지 골굴사로 오시어 범종을 타종하고 소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타종식 당일 점심제공)

대한불교조계종 골굴사 주지 설적운

자기가 이 세상에 나서 살면서 왜 자기를 의심합니까

☞ A29면에서 계속

식이 따로 없어요. 더 크게 분다면 사생이 따로 없단 얘기에요. 너무 모습을 바꿔 가면서 진화 돼서 화해서 자꾸자꾸 돌아가니까요. 그러니 내가 위대하고 잘나고 아, 참 조건 좋고, 내 이렇게 사니까 '이만하면 만족해.' 이러지마는 그것도 틀린 거예요. 그것도 한 철이니까요.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한 철. 인생은 나그네의 길. 이것을 한 철이라고 보죠. 한 철이라고 하는 데서 볼 때는 여러분이 전부 나그네의 길이에요. 이게. 그러니 무슨 어디 내 남편 내 자식 이거 착 두지 마세요. 착을 두면요, 외려 더 걸려서, 범망에 걸리고 레이더망에 걸리면 가지 못할죠. 자꾸 그렇듯이 유의 세계 무의 세계를 넘나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움직이고 뛰지도 못하고 자꾸 걸려 가지고 되는 노릇이 없거든요.

그러니 모든 자손들과 남편과 아내, 형제, 모두 어떠한 일이 앞에 닥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주인공밖에는 해결 못한다.' 주인공이 다 같거든요. '주인공 율전수가 다 끌고 다니는데 내 어찌 그것을 맘대로 하라. 주인공밖에는 해결 못한다.' 하고 믿으면서 딱 놔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밭이 묵어지지 않아요. 이 마음 자체가 체가 없으니까 밭이 묵어지지 않는 거죠. 그 마음으로부터 육신을 잘 끌고 다니는 거다.

잘못되는 것도 마음으로 지어서 잘못되거든요. 내가 꼭 저걸 관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 가지고는 돈을 왕창, 돈 쪼끔 탄 거 가지고 왕창 들어가지곤 훌쩍 집어먹고선 또 죽겠네 살겠네 하거든요. 그것도 자기 마음이에요. 그것이 너그럽게 볼 수 없는 그런 눈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육안으로만 봤기 때문에. 심안을 통해서 봤더라면 그것이 그렇지 않을 건데, 그게 그렇게... 아니, 가난한 것도 그렇고 모두가 전부 보이면 자기 탓입니다. 그 억지로 못해요.

그러니 우리가 내 마음에 놓는 공부를 하게 되면 그 다섯 가지가 계발이 된다. 그 다섯 가지가 계발이 돼서 오신통을 그대로 여여하게 할 수 있는 자유권을 얻을 때 그때 다시 체험을 하면서 또 보임을 한다.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우주 법계가 다 공통점이 될 수 있어요. 우주 법계가 다 우리네 몸뚱이에 그 법계가 있는 거와 같이, 범망이 있고 법계가 있고 그렇듯이 그냥 전부 통해요. 즉 말하자면 그 통신망을 넘나든다는 얘기고, 통신, 이 전체 통신. 통신이 잘되니까 심안으로도 밝게 볼 수 있고, 또 그게 통신이 되면 모습 없는 모습들이 즉, 천이, 신축, 타심, 속명 이런 것이 다 발로가 돼서 동시에 용도대로, 아까 얘기했듯이 미리 미리 그냥 이렇게 한생각이 나면 그냥 그 즉시 찰나의 살림살이예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바

깎으로 나오는 현실이예요. 불법은 생동력 있는 현실이지 죽은 게 부처님 법이 아니라는 얘가지요. 그러니까 심성과학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걸 천체물리학이예요. 그러니 어찌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도리를 모르고 갈 수 있겠습니까.

좋은 반력자를 만나려면...

문) 결혼해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면 차라리 그냥 계속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싶은데 부모님께서 워낙 걱정하시는지라 갈등이 되기도 합니다. 평생 공부도반으로 지낼 수 있는 반력자가 생긴다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마음내야 되겠습니까.

답) 그거는 마음을 내고 내 안고가 없어요. 자연적으로 이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아주 친근하게 생각

을 볼 때도 나를 귀찮게 안 하게 하는 것도 나쁜이야. 그렇게 생각나는 대로 관한다면은 거까지 불이 들어가서 그 다음서부터는 성가시게 안 해요. 그리고 그 사람도 아주 착하지요. 그런데 뭐가 걱정입니까?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지는 대로 되는데 왜 걱정이에요? 왜 그렇게 의심들을 하고 왜 자기가 이 세상에 나서 살면서 자기를 의심하느냐 말입니다.

잘생겼든 못생겼든 모두가 자기 할 것이라고 생각돼요. 편안하게 살고 편안치 못하게 사는 거는 자기 마음의 견해에 의해서 그렇게 산다는 것을 생각해요. 정말이예요. 나는 항상 그렇게 실천을 하고 나가는 사람이나 어떤 때는 내가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뜻을 모르지만 통하는 사람들은, 자기 주인공과 자기와 통하는 사람들은 죄 알아듣게 돼 있어요.

마나 좋아요? 해결을 못해야, 은비 까비가 그걸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은 아주 괴로운 세상을 살겠죠. 그러나 은비 까비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게 괴롭지 않은 세상이지요. 어디나 억울한 사람 보면 억울한 대로 불쌍한 사람 보면 불쌍한 대로 여러분도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공부시키는 거거든요.

모습 없는 일체 영령들도 물질과...

문) '뜻으로 폰 천수경' 가운데서 '모습 없는 일체 영령들도 물질과 둘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라는 말이 있는데 알 듯도 하면서도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모습 없는 의식이라든 스무 개, 백 개, 천 개, 이 허공에 딱 찻다 하더라도 내가 한 번 마

그런 데서 스스로서 자동적으로 재생이 돼서, 여기서 나기도 여기가 좋지 않는단 얘기에요. 마찬가지로 이걸 마음, 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영이 영한데 들어왔다가 영이 영대로 또 나가서 재생이 돼서 씩이 된다 하면은 그것 참 좋은 일이고, 재생을 시키기 좋은 일이고, 그 집에 그런 우환이 없어지게 하니 좋은 일이고, 그 도리를 아니까, 떳떳하니까. 이 세상에 주인이 되니 좋은 일이고, 진짜 부처가 되니 좋은 일이고, 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거 하나를 가지고 온 가정이 그냥 뭐 죽을듯 살듯 하거든요. 그러니 이 공부 하나 잘한다면, 한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잘한다면은 그 가정은 아주 편안하게 나갈 수 있을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부를 한하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우물쭈물하다가 그냥 일이 닥치면 '나는 주인공을 찾았는데도 그래요.'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가르치는 대로, 이끌어 가는 대로만이 꼭 부러지게 잘할 한다면 정말 이 세상에 더없는 으뜸한 주인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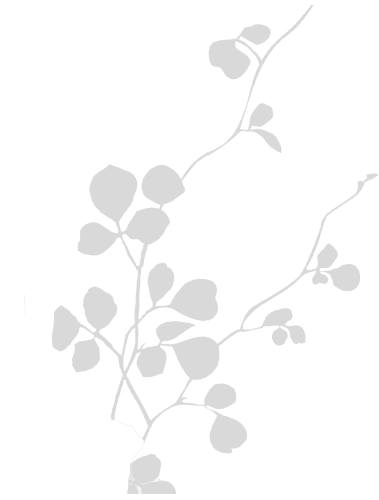
화두를 들고 공부하는 것은

문) 참나를 찾기 위해 관하는 방법 외에 화두를 들고 공부하는 것은 어떤지요.

답) 아니, 화두가 또 따로 있나? 이 수박을 내 몸뚱이라고 합시다. 수박을 놓고 요놈이, 이 주인공이라는 놈이, 요놈이 뭘고 한다면, 이게 물론 관이라고도 할 수 있고 참구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요놈의 게 뭘고?' 하고 평생을 돌아봐야 이걸 맛을 못 봐요. 맛을 몰라요. 수박을 놓고 그냥 무조건 넘어서야 된다고 하소립니다.

무조건 이 마음의 칼로 쪼개서 맛을 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에 모든 것을 맡겨 놓고 '거기서만이 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아예 무조건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수박 속으로, 수박을 놓고 '이게 뭘고?' 하기 이전에 그냥 수박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지금은 훌쩍 넘어야 할 세상이에요. 그렇게 빨리요. 우물쭈물하다가 자전거에 치이듯이, 우물쭈물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질라 먹고 넘어가라 이겁니다. 부처님이 앞에 있어도 그냥 먹고 넘어가라 이 소리예요. 일체 만법을 다 거기가 다 맡겨 놓고 넘어가는데, 고놈만은 왜 놓칠 못하고 고놈만, '고놈이 뭘고?' 하느냐 이 소립니다. '고놈 뭘고?' 하기 이전에 그냥 그놈도 집어삼키고, 꿀떡 삼키고 넘어서라 이겁니다. 그럼 맛을 알게 될 거다 이거예요, 고놈 맛을, 고놈이 뭘고 하고 아무리 그래 봤자 그냥 울타리 밑에서 맴도는 거와 같아요. 그러니까 그놈을 꿀떡 집어삼켜서 먹고 넘어서서 길을 걸어야 이겁니다.



이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아주 냉랭하고 그냥 답답하게 생각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 불쌍한 생각이 들고 그러죠? 그랬을 때에, 또 어떤 사람을 보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을 보면은 못하게 보이고, 어떤 사람을 보면은 그 집안 환경 때문에 아주 곤궁하게 불쌍한 사람이 있고, 시시때때로 각각 이렇게 보이는 게 있는데 그 보이는 것을 지혜로운 마음이라면, 불쌍하면 불쌍치 않게 모 든 과거 미래 현재를 한데 써서 주인공에다 놓으면은 그냥 삼체가 통하는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주인공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놓고 마음 한 번 탁 내 주면은 그쪽도 좋아지고 보는 나도 좋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짢다, 좋다, 밍다, 예쁘다 이런 거를, 모든 것을 뇌라 하는 말이 그런 데서 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공부를 못하던 사람도 내 마음을 진정으로 내 뚫을 때 다시 바뀌지요.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해서 얽힌 것이 풀어지니까 그게 잘되는 겁니다. 또 나한테 아주 밍게 하는 사람, 나를 아주 귀찮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지금은 훌쩍 넘어야 할 세상입니다.

수박을 놓고 '이게 뭘고.' 하기 이전에

그냥 무조건 수박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물쭈물하다가 자전거에 치이듯이

우물쭈물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질라 먹고 넘어가라 이겁니다.



음을 쓰면 그게 한 마음이지 두 마음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음 되게 하소서.' 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냐 하면은 '한마음 되게 하소서.' 하면 보는 사람이 그거를 퍼뜩 알아채서 '너 그렇게 해라.' 이 소리거든요. 그렇게 부처님한테다 비교해서 '내 마음을 빨리 지혜롭게 하게 하소서.' 할 때도 자기가 그렇게 해라 이 소리지, 상대방에다가 기대고 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은 이사를 가 가지고 영계가 있다고 해서 그냥 모두 야단들을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냐 하고 난리들을 벌이고 뭐, 사람이 자꾸 죽어나간다고 뭐 어쩐다 이러는데, 그거는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한생각이면 그냥 없 어질 걸. 아이, 생각해 보세요, 글썄. 그거를 '널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꺼내도 좋지 않으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의식들을 전부 그냥, 약한 거든지 선한 거든지 내가 된다면 내 마음의 주인공에 한데 넣는 다면 그냥 내가 돼 버리는 거죠. 내가 되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돼 버리니까.

창간 20주년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화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1)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역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장도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육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처명)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동상 / 특허청장상 수상 CE 인증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전동운반차의 선구자! **근우테크주**

“ 심보에 귀의하옵고, 안녕하십니까? 저희 근우테크는 현재 동종업계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친환경 전동 농산업 기계'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근우테크의 제품 중 사찰에 꼭 필요한 전동 운반차를 안내 드립니다. 제수, 공양, 연등 등 운반과 설치가 꼭 필요한 제품으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이용 가능한 전동 운반차 이오니 공공하신 것이 있으시면 아래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오.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사찰에 최적화된 다섯가지 특징!

1. 안전한 공양 및 제수 운반! 평지는 물론 경사진 길에서도 지체의 기울기 조절을 통해 200kg까지 거뜬하게 운반합니다.
2. 간편하고 안전한 사용법! 자전거 운전만큼 간단합니다. 10분의 연습 후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전자브레이크 장치로 사고위험이 없습니다.
3. 저렴한 유지비! 한달 휴대전화 충전 요금이면 충분합니다.
4. 안전한 연등 설치 작업대! 연등 설치와 같이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무거운 물건 등을 차량에 상·하차 시 유용합니다.
5. 소음 걱정 끝~! 수명이 길고 힘이 좋은 99.9% 연반 배터리를 사용, 교묘한 사찰 환경에 적합합니다.

※ 종단 / 교구 / 지역 / 신도회별 단체상담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근우테크주** KUNWOOD TECH CO., LTD. 문의전화 : 010-4630-7903, (053)801-7897, 7895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공단로 82-6(검단동 887-160번지) www.kw-tec.co.kr

대한불교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67권째 저서 출간!

바로 유마경

유마경은 가히 불법의 최정점을 찍는 경전이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대원선사 토끼뽕>로 이 유마경에 걸맞는 최상승법을 이 시대에 다시금 드날렸다.

완전한 우리말 불공예식법

불공예식법이란, 우러러 공경을 다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으로부터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구하는 예법 등을 총칭함이다. 이러한 귀중한 예법들이 흠족한 우리말본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종략) 50여 년 전 대구 보현사 시절부터 준비했던 원고를 정리하여 오늘에야 출간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이 시대에 맞는 석문의범

www.zenparadise.com 참조